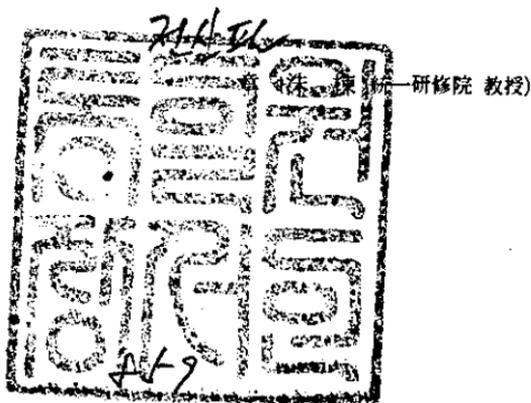


革命主義民主主義

二 實相斗 問題點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차 례

1. 序 言	3
2. 學生運動의 變遷過程	4
3. 運動圈學生勢力 分布	6
4. 左傾意識化의 過程	9
5. 左翼勢力的 擡頭 背景	12
6. 民衆革命論과 마르크스·레닌主義	15
가. 前衛勢力的 現代史觀	15
나. 前衛勢力的 民衆概念	17
다. 前衛勢力的 分派別 革命路線	19
(1) 兩大分派의 路線	19
(2) 其他分派의 路線	22
(3) 레닌主義와의 比較	24
(4) 北韓路線과의 比較	26
(5) 前衛勢力的 民衆統一論	29
라. 社會分野別 左傾化 現況	31

7. 北韓의 '南朝鮮革命論'	46
8. 前衛勢力的主張과 그 問題點	51
9. 結 言	58

1. 序 言

이제 우리의 學園事態는 예사로 넘길 수 없는 심각성을 띠게 되었다. 방화, 파괴등 극단적인 暴力示威가 난무하는가 하면 노골적인 反美·反體制 「民衆革命」 구호가 등장하고, 金日成의 소위 「主體思想」이 버젓이 大學新聞에 게재되기도 한다.

따라서 비록 소수라고는 하지만 運動圈學生들에 의한 이같은 극단적인 言動은 비단 大學街만을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國家存立基盤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自由民主主義를 信奉하는 우리 국민 절대다수의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에 고무된 북한공산집단(以下 북한이라 칭함)은 그들의 온갖 報道媒體와 外廓團體, 그리고 各級 學生集會까지 동원하는등 우리의 대학소요를 선동하기에 血眼이 되고 있다.

本稿는 이와같은 상황에 留念하여 과연 急進左傾勢力이 주장하는 「民衆民主主義革命論」과 「民衆統一論」이란 그 本質이 어떤 것인지 實相을 밝힘으로써 이의 收拾策을 도출하는데 범국민적 지혜를 모을 수 있는 一抹의 자료역할을 하고자 한다.

2. 學生運動의 變遷過程

우리나라에서의 학생운동은 新教育이 태동된 일제시대부터 있어 왔으나 그 성격은 많이 변질되어 왔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첫 단계는 抗日期의 학생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학생운동은 해외유학생들에 의한 民族獨立宣言과 국내학생들에 의한 學生結社運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당시의 학생운동은 대체로 民族獨立을 위한 自主性 回復運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 둘째 단계는 8·15 해방 직후의 建國期의 학생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 시기의 학생운동은 反託示威를 통한 건국촉진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학생운동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南勞黨」의 사주를 받은 左翼系 學生(學生同盟)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贊託示威를 전개함으로써 학생운동이 左·右로 분열되었다는 점이다.

그 셋째 단계는 '60년대 전반의 民族發展摸索期의 학생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학생운동은 대체로 3·15 부정선거항의시위, 對日屈辱外交반대시위, 한미행정협정촉구시위 등 民族主

體性的 확립을 위한 하나의 自覺運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학생운동에서 특징적인 것은 북한의 6·25 남침전쟁으로 인해 좌경학생운동이 일단 제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民主黨 政權이 新舊派間에 극심한 派爭을 하느라 反共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게을리한 틈을 타서 우리 學園에 북한의 손길이 뻗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평양의 金日成大學에서는 남북학생대표가 統一會談을 개최하자는 결의까지 하는가 하면 남한에서도 통일은 민족적 지상과제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좌경적 학생운동이 또 다시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 넷째 단계는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에 걸친 近代化 期의 學生運動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학생운동은 改憲反對, 교련반대, 維新反對 등 외견상으로는 民權奪還運動으로서의 성격을 풍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民靑學聯事件, 統革黨事件, 南民戰事件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원을 民衆蜂起의 橋頭堡로 이용하려는 地下共產組織의 戰略·戰術的 음모와 그에 동조한 일부 학생들의 불순한 동기가 내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에 가담한 대부분의 선량한 학생들은 그것을 단순한 정치사회개혁운동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날 학원사태의 심각성

이 배태된 것이다.

그 다섯째 단계는 「10·26」 이후 오늘날까지의 학생운동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학생운동은 외견상으로는 정치·경제·군사·문화등 사회전반에 걸친 民主化運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학생운동의 前衛勢力이 마르크스주의 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물들은 자들이고 이들이 대다수의 단순한 현실비판적인 일반학생들까지 反體制的 폭력혁명투쟁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우리 대학가는 교직원에 대한 폭언과 구타까지도 서슴지 않는 등 신성해야 할 教權의 威信마저 추락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방화, 파괴등 극단적인 폭력사태로 말미암아 참된 민주화의 道程에 찬물을 끼얹고 엄청난 국가재산이 소모되고 있다.

3. 運動團學生勢力 分布

이처럼 대학가 일부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교수와 학생간에 대화가 단절되는가 하면, 학생들 상호간에도 운동권학생과 非운동권학생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본래의 대학기능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운동권학생 세력의 分布는 어떠하며 信念體系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대학소요를 올바르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편의상 운동권학생의 구성원을 분류해 보면, ①前衛勢力 ②追從勢力 ③浮動勢力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前衛勢力은 마르크스주의 또는 마르크스·레닌주의-’84년까지는 일시적으로 急進左傾思想¹⁾으로 불리우는 네오마르크시즘, 뉴레프트, 유로코뮤니즘, 종속이론, 해방신학 등의 영향하에 있었던 것 같이 보였음-를 信念體系化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사회주의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본주의적 바탕위에 구성되는 어떠한 政府와도 타협하지 않는다.

따라서 與黨을 主攻目標로 삼고 있으며 野黨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전술에 불과하다. 이 전위세력은 운동권 학생중 극히 소수이지만²⁾ 地下化되어 있고 點組織으로 되어 있으며 가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은 물론, 같은 운동권 학생간에도 실체를 모르게 되어 있다.

追從勢力은 전위세력의 뜻에 추종하면서 그들의 지시를 받고 행동한다. 그러나 이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그럴듯하다고 생각할 뿐, 아직 그에 대한 확고한 신념체계가 서있지 않은 상태

1) 급진좌경사상·운동에 관해서는 별도의 교과과정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2) 韓國政策開發院編, 「學團急進思想批判」(서울: 신원문화사, 1985), p. 17.

라서 때로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에 휩싸이기도 하기 때문에 올바른 이념교육과 사회정화가 이루어지면 醇化가 가능한 部類이다.

浮動勢力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신념같은 것은 없고 대학생이면 示威를 몇차례하는 것이 주위에 대한 체면도 서고 어울리지 않겠느냐고 하는 단순한 思考에다, 정부를 비판하고 기성가치관을 반대하고 부정하는 입장에 서야만 마치 進步的 知識人인양 인식되는 그릇된 우리의 知的風土 때문에 학생시위에 일시적으로 가담하는 부류를 말한다.

이들은 시위에 가담하면서도 무질서나 폭력에 대해서는 회의하며 반성하기도 하고 정부의 긍정적인 점을 인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加勢與否가 시위의 규모를 좌우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학생들은 6·29선언 후 많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학생운동의 현장지휘자는 통상 추종세력이며 전위세력은 철저히 점조직화되어 배후에서 우회적 방법으로 追從勢力에게 지시를 내리므로 추종세력에 속하는 학생이 前衛勢力에 속하는 학생을 辨別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위세력이나 추종세력은 수적으로는 적지만 조직된 소수가 교묘한 수법으로 무조직인 대다수학생들을 시위에 몰아냄으로써 그들의 목적에 이용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4. 左傾意識化의 過程

左傾意識化란 사물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모든 정신활동이 급진주의적·사회주의적·공산주의적 경향으로 기울고 있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사회에서의 대학생, 특히 운동권 전위세력에 대한 좌경의식화는 주로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각종 유형의 校內 理念서클과 이들 서클을 배후조정하는 校外團體들에 의해서 실시되어온 意識化工作의 산물이다. 이 의식화공작에 사용되는 교재는 주로 左翼冊子 또는 油印物이지만 그렇지 않은 책자도 있다. 그러나 비록 온건한 내용의 책자라 할지라도 그 사용목적과 방법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의식화공작의 방법을 보면 서클을 통해 각종 명목의 독서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左翼知識을 학습케하고 선배 회원이 이른바 '思想指導'를 함으로써 서클회원의 공통적인 의식을 유도한다.

이를 教育過程(Curriculum)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3) 이와 관련된 자료로서는 月刊「廣場」지에서 발행한 “80년대 운동권 학생의 커리큘럼 分析”(1985) 및 치안본부가 발행한 「左傾意識化의 實態」(1982) 등이 있다.

각종 형태의 이념서클에 가입한 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1학년 때는 「歷史란 무엇인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 비교적 평이한 자유주의나 민족주의 경향의 책자를 선정, 이용하여 비민주적 내지 반자유적 요소들을 들추어냄으로써 현실비판의식부터 배양한다.

예컨대 「歷史란 무엇인가」란 책은 누구나 읽는 평범한 베스트셀러物이지만 이 책을 사용하는 자가 그 목적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下線(Underline)을 붉은 선으로 표시하고 강조하면 현실비판의 첫 단계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1학년말 쯤에 가서는 마르크스주의경제학 계통인 「후버만」, 「랑케」 등의 작품을 공부하고, 한국경제에 대해 외국인이 비판적으로 쓴 논문 내지 저서를 골라서 읽게 한 다음, 토론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해 大衆 앞에서 논리정연하게 우리의 경제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안목과 방법을 터득시킨다.

2학년에 올라오면 마르크스의 唯物史觀 입장에서 쓰여진 西歐經濟史를 읽힌다. 즉 原始共同體社會→奴隸制社會→封建制社會→資本制社會→共產制社會(社會主義 포함)로 역사가 발전되어 간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그런 다음 봉건제사회가 자본주의사회로 바뀌어 왔듯이 자본주의사회도 반드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사회로 바뀐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歷史發展의 必然法則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여기에서 역사발전과정과 마르크스의 唯物史觀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2학년 2학기가 되면 마르크스주의 계보에 속하는 정치·경제관계 原書 몇권을 더 공부시킨다음 네오마르크스주의·뉴레프트·종속이론·신제국주의·해방신학 등 急進左傾思想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학습시키게 된다. 그리하여 2학년 말경에 가서는 지금까지 익힌 것을 토대로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후진자본주의 국가와의 분쟁원인 등 分配·隸屬關係를 個別事例研究 방법으로 공부하게 된다.

그리하여 3학년 1학기때 부터는 자기나름의 새로운 信念體系에 따라 示威에 적극 가담하게 되고, 4학년이 되면 個人主義 清算運動을 통해 흑백논리적인 鬭爭性向을 定立시킨다. 이러한 左傾意識化 教育에 직접·간접으로 동원되는 좌익책자 및 유인물만도 수백종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마침내 教授를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개혁에의 정열이 없는 한낱 大學의 장식품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정상적인 교육이나 본래의 기능을 무시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무장하게 된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분석결과이

다. 이렇게 해서 좌경의식화된 학생은 다시 非서클회원으로서는 悲憤慷慨派 학생이나 학생운동을 社會進出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학생 또는 附和雷同하는 학생들을 교묘하게 끌어들이어 운동권 학생들을 배후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前項에서 구분한 浮動勢力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소요의 초점이 左傾化運動이라고 하면 “내가 왜 좌경이나”고 어이없다는 듯 깜짝 놀라게 되는 연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5. 左翼勢力的 撞頭 背景

운동권학생 전위세력이 공산주의에 감염된 배경에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몇가지 背景만을 診斷해 보기로 한다.

첫째, '60년대와 '70년대 초기에 걸쳐 북한이 다수의 工作員을 납파하여 이른바 「혁명의 씨앗」을 우리사회에 뿌렸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시기에 있었던 人革黨⁴⁾ 統革黨⁵⁾ 民靑學聯⁶⁾

4) 都禮鍾, 徐道源 중심의 지하당(人民革命黨)으로서 1964년에 그 일당이 검거되었다.

5) 金鍾泰(主謀者), 金瓚洛(靑脈誌 主幹), 李文圭(學士酒店 代表) 등이 중심으로 된 地下黨(統一革命黨)으로서 1968년에 주요인물 38명이 검거, 송치되었다.

6) 人革黨 재건파, 재일조총련계, 일부좌경학생등이 결합하여 조직한 「全國民主靑年 學生總聯盟」을 뜻하며 1974년에 적발, 와해되었다.

南民戰⁷⁾ 등이 일망타진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외의 殘餘分子 및 刑期를 마친 一部 前記 사건관련분자들이 뿌리를 뺏어 꾸준히 우리의 대학가에 공산주의혁명공작을 전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 不純분자들이 몸담고 있는 곳은 주로 산업현장, 좌경출판사, 청년단체 등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최근에 쏟아져 나오는 좌익서적과 유인물들이 거의 모두 그들의 손을 거치고 있을 뿐 아니라 요즘 공산주의에 물들은 운동권학생 전위세력은 이들로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 思想·組織·戰術 및 理論을 무단히 지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친 경제개발기에 빚어진 우리 사회의 일부 대형 부조리사건이 북에서 보낸 공작원(간첩)이나 左翼先輩들에 의한 공산주의 공작을 먹혀들게 하는데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판단된다.

공산주의에 물들은 운동권학생 전위세력이 남한의 정치·경제·군사·문화 등이 모두 外勢에 예속되어 있으며 극히 일부의 親美·親日派들만이 부귀영화를 독점함으로써 一般民衆은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거의 무비관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7) 人革黨 및 民靑學聯의 간부로 있었던 李在汝를 총책으로 하는 「南朝鮮解放民族戰線」으로서 1979년에 20명이 검거, 송치되었다.

셋째,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능력을 갖추기 전에 일부 禁書解除措置가 취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않게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즉 금서해제조치에 편승하여 우리 사회에는 대대적으로 左翼書籍이 유입·번역되고 각색·편집되며 복사 보급되는 등의 奇現象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상업화된 복사가 문명의 범람으로 인하여 惡性 左翼文物이 마치 핵분열하듯이 확산됨으로써 오늘의 대학가에는 실로 어지러운 현상이 조성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같은 현상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전술한 바의 사회적 부조리 현상을 두고 좌익서적에서 논급되고 있는 그대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필연적 현상으로 믿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資本主義的인 것은 모두 惡이며 反資本主義的인 것은 무조건 善이라는 식의 흑백논리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행동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우리는 6·25 동란을 고비로 이 땅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완전 소탕되었다는 환상 속에서 그동안 理想的 및 社會科學的 對備도 없이 「反共」이라는 구호제창에만 의존해 왔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自由民主主義 理念 및 體制를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일을 게을리한 채 비현실적인 西歐文物을 도식적으로 원용하거나 공산주의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비판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思想本位の 綜合性을 지니면서도 실천 체계를 조직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 학설의 진상 포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갑자기 左傾意識化된 선배들과 마주치기에 이른 셈이다.

다섯째, '70년대 초에 美國과 中國간에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개선은 그때까지의 우리의 反共的인 意識狀況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미·중국관계 개선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 한반도에서는 南北對話가 개시되었는데 이같은 상황변화는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청년학생들에게는 공산주의를 보는 시각을 絶對惡으로부터 상대적인 이데올로기로 전환시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덧붙여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이웃 일본을 비롯한 서구선진제국에서 대두되었던 급진좌경학생운동의 영향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

6. 民衆革命論과 마르크스·레닌主義

가. 前衛勢力的 現代史觀

운동권학생 전위세력은 지난날 일제에 항거하여 투쟁한 것은 오직 공산주의자들 뿐이었다는 주장을 펴 왔을 뿐 아니라 더우기

최근에 외서는 북한이 날조한 金日成 抗日革命鬪爭史를 내세워 그것만이 유일하게 국외에서의 항일투쟁이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난날의 麗順反亂과 大邱 및 제주도 폭동사건도 「反帝·反封建·反分斷 民衆抗爭」이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6·25 남침전쟁을 두고 민족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民衆의 意志가 표출된 「민족해방전쟁」이었다고 강변하면서 유엔군을 오히려 外來侵略軍으로 매도하고 있다. 또한 4·19 학생의거도 미완성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으로 간주하는가 하면⁸⁾ 光州事態를 두고 「남조선혁명의 예행연습」으로 취급하기도 한다.⁹⁾

이와 같은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전통적인 민중혁명투사들의 후예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三民鬪」였고, 그 후예들은 '86년의 「民鬪」와 「自民鬪」를 거쳐 오늘날의 「서민學聯」, 「全人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제대로의 프롤레타리아 前衛黨, 즉 공산당이 남한에서 형성될 때까지 그 역할을 과도적으로 대신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요컨대 NK(북한을 지칭)는 해방자 소련의 도움과 김일성의 영

8) 각종 좌경유인물에서 이같은 내용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

9) 좌경유인물, 「마주의 군사론 입문」, p. 103 및 「광주민중혁명의 민중운동사적 조명」, 전학련(1985) 등 (마주: 마르크스主義 약자)

도로 참된 민중적 「인민민주주의의 혁명」을 마치고 지금은 사회주의의 낙원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SK(남한을 지칭)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그 앞잡이인 親美·親日派의 독세로 대다수의 민중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⁰⁾ 따라서 전위세력들은 현재의 新植民地로서의 ‘파쇼적’ 남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여 民衆解放과 民衆統一을 실현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는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 前衛勢力的 民衆概念¹¹⁾

운동권학생 전위세력은 「民衆」을 논하기에 앞서 「階級」을 논하고 있는데 그 관점이 완전히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즉 생산수단의 所有與否, 勞動組織에서의 役割, 收入源泉과 그 크기 등에 있어서 각각 처지를 달리하는 사회집단을 계급이라 규정하고 오늘의 한국사회가 다음과 같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고급관료(기능적 자본가)를 포함한 買辦資本家 階級

둘째, 교수, 변호사, 의사, 목사, 회사중견간부, 고급기술자 및 고

10) 좌경유인물, 「미임프의 식민지 에프통치 깨부수고 해방, 통일, 민주 만만세!!!」, p.2(임프:帝國主義, 에프:파쇼의 약자).

11) 좌경유인물, 「민중민주주의 민족혁명운동의 기본개념을 정립하자」, pp. 13~20 및 「일보전진」등 참조.

급장교 등으로 된 新中産階級.

셋째, 흔히 민족자본가로 불리우는 中小商工業者階級.

넷째, 자립경영이 가능한 부농계급.

다섯째, 소작인, 雇傭農 등의 貧農階級.

여섯째,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계급.

일곱째, 離農民, 실업자, 영세상인 등으로 된 도시빈민계급 등이
다.

이상과 같은 계급구분에 따라 이들은 민중을 “植民地·半植民地·新植民地 나라들에 있어서의 반제·반매관투쟁과정에서 형성된 계급연합의 歷史的·社會的 實體”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일반규정에 이어서 개념적으로는 買辦資本家 階級을 제외한 6개 계급을 일단 「民衆」으로 부르기는 하나 “실천적으로는 노동자, 빈농 및 도시빈민만이 革命的 민중의 構成階級이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즉 민중을 「들러리민중」과 「基層民衆」으로 재구분하고 있는 셈이다.

더우기 이같은 기층민중 가운데서도 혁명의 領導階級은 어디까지나 노동자계급이어야 하며 빈농과 도시빈민은 그 영도를 받는 戰略的 同盟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 밖의 「들러리민중」은 정권을 탈취할 때까지는 제휴할 戰術的 同盟對象이어서 당면한 예비혁명으로서의 민중혁명이 성취되고 본격적인 社會主義 革

命期에 들어서게 되면 제거 내지는 개조해야 할 대상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前衛勢力的 分派別 革命路線

(1) 兩大分派의 路線

세칭 「三民闘」의 조직이 와해된 이후 운동권학생 전위세력은 크게 兩大分派로 재편성되었는데 그 하나가 「民民闘」로 불리우는 「反帝·反파쇼民族民主闘爭委員會」-革命路線은 NDR¹²⁾ 卽, 民族民主主義革命임-이고, 또 다른 하나는 「自民闘」로 불리우는 「反美自主化·反파쇼民主化闘爭委員會」-革命路線은 NLPDR¹³⁾ 卽, 民族解放民衆民主主義革命임-이다.

이같은 兩大分派의 분립은 한국사회를 어떤 社會構成體로 보느냐 하는 기본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에 따라 당면한 주요모순의 規定, 당면한 1단계 예비혁명의 戰略目標 및 革命力량의 配置計劃-주로 동맹세력의 책정-등이 달라지게 되는데서 성립되고 있다.¹⁴⁾

12) 民民關係 油印物, 「대중은 민족민주개헌투쟁의 깃발을 요구한다」 및 「반제 반군 부파쇼 민주해방투쟁선언」 등.

13) 自民關係 油印物, 「에스케이알의 성격과 전략전술」, 「에스케이혁명의 성격과 임무」 및 「우리는 지금 피티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준비할 것인가」 등 (SKR : 남한혁명, 피티 : 프롤레타리아의 약자).

14) 세계평화교수협의회, 「左傾學生運動의 現況과 展望」, 1986, p. 5.

이들 兩者의 革命路線을 구체적으로 그 전략계획에 따라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사회구성체적 평가면에서 自民團가 남한을 “예속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보는데 대해서 自民團는 “新植民地 社會”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민민투가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自民團는 ‘식민지’라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차이가 있다.

둘째, 당면한 주요모순의 규정면에서 민민투가 “파시즘·매관자본과 민중간의 모순”으로 보아 階級的 矛盾을 강조하는데 대해서, 자민투는 “제국주의와 민중간의 모순”으로 규정하여 民族的 矛盾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주요모순 규정면에서의 차이점은 前述한 社會構成體 評價의 차이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셋째, 당면 1단계 예비혁명의 전략목표 책정에 있어서 민민투가 “主 파시즘 打倒, 從 帝國主義 逐出”로써 민중공화국-실제로는 人民共和國-을 수립하는데 두고 있는데 대해, 자민투는 “主 帝國主義 逐出, 從 파시즘 打倒”로써 민중민주주의 정권-실제로는 人民民主主義 政權-을 수립하는 것이 正道라는 것이다. 이같은 전략목표 책정의 차이는 전술한 주요모순 규정면에서의 차이에서 연유되는 것이다.¹⁵⁾

15) 上揭書, pp. 5~6.

넷째, 革命主力軍 책정면에서 민민투가 “프롤레타리아트”만을 主力軍으로 삼고 있는데 대해서, 자민투는 “프롤레타리아트 영도하의 勞·農·貧 同盟¹⁶⁾과 그 속에 뿌리박은 마르크스·레닌主義黨”을 주력군으로 책정하고 있다.

다섯째, 革命補助軍(보조역량)의 책정면에 있어서 민민투가 빈농, 도시빈민 및 진보적 청년학생으로 잡고 있는데 대해서, 자민투는 보다 광범하게 진보적 청년학생과 인텔리, 小生産者階級, 그리고 애국적 민족부르주아지들을 책정하고 있으며, 야당도 비록 전략적으로는 타도대상이지만 여당과의 갈등을 間接豫備軍으로 활용할 필요성에서 잠정적인 戰術的 제휴대상으로 삼고 있다.¹⁷⁾

이상과 같은 차이 때문에 민민투는 자민투를 右傾的 기회주의니, 投降主義니, 개량주의 등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자민투는 민민투를 두고 右傾的 영웅주의니, 妄動主義니, 모험주의 등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自民團 측의 일부학생들은 右傾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격한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¹⁸⁾

그런데 이들 兩派는 서로가 마르크스·레닌主義的 正統派임을

16) 1985. 7. 27.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명의로 發表한 “한국민족자주선언” 以後는 主力軍이 勞·農·學同盟과 그 속에 뿌리박은 前衛組織으로 바뀌었다. 不穩油印物, “주체사상강좌” 제3장 민족해방운동의 전략과 전술, 1987. 3. 9, p. 6참조.

17) 前掲「에스케이알의 성격과 전략·전술」, p. 18.

18) 前掲「左傾學生運動의 現況과 展望」, p. 6.

자처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서로 헤게모니 쟁탈전을 전개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反帝·反파쇼鬭爭」면에서 통일전선을 취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다가 '89년 5월부터는 NDR派(民鬥)가 變身하여 自己들이 反파쇼勢力인 PDR派임을 자칭하면서 從來까지의 NLPDR派(自民鬥)는 現實을 度外視한 NL, 즉 反帝鬭爭밖에 모르는 非科學的, 空想主義者라 是非하면서 NLPDR派를 NLR派로 몰아 붙이고 있는 實情이다.

(2) 其他 分派의 路線

「民鬥」와 「自民鬥」 이외에도 CDR¹⁹⁾(市民民主主義革命) 路線, UDR²⁰⁾(統一民主主義革命) 路線, NPR²¹⁾(民族民衆革命) 路線등을 표방하는 系派가 있으나 그 세력은 전술한 兩大派에 비할 바가 못된다. 이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 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분파세력들이다.

市民民主主義革命路線을 표방하는 系派는 남한사회를 “周邊部資本主義社會”로 간주하며 당면한 주요모순을 “군부독재와 민중간의 모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군부독재를 타도한 후 民衆政權下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성장하는 대로 「社會主

19) 시민민주주의혁명노선과 유인물, 「민주·통일·민중운동론」 등.

20) 통일민주주의혁명노선과 유인물, 「민주주의의 알」 등.

21) 민족민중혁명노선과 유인물, 「전진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이정표」 등.

義·民族解放革命]으로 전환할 전략을 세우고 있어 다분히 멘세 비키형의 非連續 2段階革命을 추구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²²⁾

統一民主主義革命路線을 표방하는 系派는 남한사회를 “신식민지 사회”로 간주하며 당면한 주요모순을 “제국주의·파시즘과 민중간의 모순”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反帝鬭爭은 북한이 담당하고 反파쇼鬭爭은 남한의 민중혁명세력이 맡는 방법, 즉 남북한의 통일적 연계투쟁으로써 1단계혁명을 성취한 다음 중국적으로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속에 흡수시키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들은 自民鬭 中の 左派 및 과격파가 분파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자민투와 같이 불세비키형의 연속 2段階革命을 추구하고 있다.²³⁾

民族民衆革命路線을 표방하는 系派는 남한사회를 “국제독점자본下的 隸屬獨占資本主義 社會”로 간주하며 당면한 주요모순을 “예속독점자본(土臺) 및 파시즘(上部)과 민중간의 모순”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부르주아 民主主義下的 남한에서 민중이 정권을 잡으면 곧 사회주의가 실현될 것이므로 민주주의 혁명단계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모든 분파들이 혁명을 그르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들은 民民鬭 中の 좌파 및 과격파들이 분

22) 民統聯系 左派油印物, 「민중의 소리」, 「민중신문」 및 기타 간행물.

23) 前掲 「민주주의 앞」, pp. 5~6.

파된 세력으로서 다분히 트로츠키型的 直行社會主義革命을 기도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²⁴⁾ 그러나 그들 3個分派는 近年에 와서 前記 兩大分派에 제각기 分解 吸收됨으로써 그 獨立的 存在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이들 5개 분파는 1단계혁명노선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폭력수단에 의한 사회주의사회」 실현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表 2 兩大分派의 改編過程 參照)

(3) 레닌주의와의 比較

「레닌주의」란 한마디로 마르크스주의의 補完物이며 주로 마르크스주의에다 실천상의 技法을 첨가한 것으로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레닌주의는 경제투쟁을 교량으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政治鬭爭으로써 政權을 탈취하고 공산당 일당독재(명분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실현코자 하는 思想上的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²⁵⁾

둘째, 레닌주의는 精銳 秘密 및 중앙집권적인 전위당을 핵으로

24) 前掲 「전진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이정표」의 제 2 및 제 3 장

25) 레닌, 「무엇을 할 것인가」, 1902.

삼고 대중적 외곽조직들을 동맹세력으로 하여 「혁명군」을 꾸미는 組織上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²⁶⁾

셋째, 레닌주의는 후진국에서는 먼저 대중과 동맹하여 「民主」 명분의 예비혁명(1단계혁명)을 성취한 다음 무장력을 갖추는 대로 본격적인 사회주의혁명(2단계혁명)으로 전환하면서 공산당의 완전독재를 행사하는 戰略(戰術) 상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²⁷⁾

넷째, 레닌주의는 모든 事物은 자체내의 모순 때문에 對立物의 鬭爭이 축적되는 과정을 거쳐 革命的(質的) 변화를 겪게 되어 있다고 하여 공산주의자 자신들의 소망인 鬭爭과 革命을 합법칙적인 것으로 합리화하는 理論(哲學) 상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²⁸⁾

이상과 같은 레닌주의의 사상, 조직, 戰略(戰術) 및 이론(哲學)을 모든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그들의 사고 및 행동의 기본 원칙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우리 대학가의 운동권학생 전위세력의 革命鬭爭路線이 북한의 노선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치상으로도 이해하기에 별로 어렵지 않는 것이다.

26) 레닌, 「한걸음 앞으로 두걸음 뒤로」, 1904.

27) 레닌, 「민주혁명에 있어서의 사회민주당의 두가지 전술」, 1905.

28) 레닌, 「唯物論과 經驗批判論」, 1909. 및 스탈린 「변증법적 및 역사적 유물론에 관하여」, 1938.

(4) 北韓路線과의 比較

북한은 6·25 남침 征服企圖가 좌절되자 남북한 전역에 걸친 동시적인 「인민민주주의혁명」의 路線을 일단 유보하고 1953년 8월부터 북한지역만의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남한에 대해서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그들의 당면과제로서 계속 제기되고 있음을 공언하면서 그 혁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²⁹⁾

첫째, 노동자계급(실제로는 공산당)의 영도하에 진행되는 혁명이다.

둘째, 각계각층의 광범한 민중이 참여하는 全民衆的 혁명이다.

셋째,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혁명이다.

그리고 그들은 조국통일의 두가지 方途로서 이른바 “平和的 方法”과 “非平和的 方法”이라는 것을 예정해 놓고 있다.

平和的 方法이란 남한 내부에서의 공산화혁명을 거치게 한 후 남한을 合作³⁰⁾이라는 명분하에 북한공산체제속에 흡수하는 방법을 뜻하며, 非平和的 方法이란 무력으로 남한을 정복하여 북한체제에 흡수하는 방법을 의미한다.³¹⁾

29)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김일성주의혁명론」, 1976, pp. 77~79.

30) 우리말로 표현하면 「聯合」과 같은 뜻의 공산당식 용어이다.

31)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 평양 社會科學出版社, 1975, pp. 265~270.

“平和的 方法”에 있어서의 전략노선은 남한의 노동자계급 영도 하의 勞·農同盟과 그 속에 뿌리박은 마르크스·레닌주의黨을 주력군으로 삼고 기타의 각계각층으로 이루어진 광범한 남한의 民衆革命勢力(제 1)과 北韓(제 2) 및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제 3), 그리고 民族解放鬪爭勢力 등을 보조역량으로 하여 “미제 축출 및 파쇼정권 타도”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달성하도록 계획되고 있다. 다른 한편 “非平和的 方法”에 있어서의 전략노선은 북한의 무장력과 남한의 혁명세력이 함께 주력군으로 되고 나머지 세력들을 보조역량으로 삼아 일거에 남한을 정복하도록 계획되고 있다.

김일성은 이같은 “非平和的 方法”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상하고 있다.³²⁾

첫째, 미국이 전쟁을 먼저 강요할 때

둘째, 미국이 세계적 규모의 전쟁에 개입하여 한반도에 관심을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셋째, 미국의 자체여론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될 때

넷째, 남한에서 “平和的 方法”이 성공하여 혁명정권의 이름으로 북한의 지원을 요청하게 될 때 등이다.

32) 上揭書, pp. 268~270.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끈질기게 주장하는 「미군철수론」은 비평화적 방법시의 ‘중심고리’ 전술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들이 끈질기게 주장하는 「高麗聯邦論」은 平和的 方法時的 중심고리 전술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같은 對南革命路線을 두고 그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원칙을 이른바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자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가장 近接하고 있는 우리 대학가의 혁명분파가 「自民闘」인 것이다.

여기에서 「自民闘」와 북한의 對南革命路線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³³⁾

첫째, 북한은 그들의 당면 대남전략목표를 남한에서의 인민정권(準共產政權)³⁴⁾ 樹立에, 그리고 最終目標을 社會主義社會 建設에 두고 있는데, 「자민투」도 당면 전략목표를 한국에서의 민중정권(人民政權과 同義語) 樹立에, 그리고 최종목표를 社會主義社會 建設에 두고 있으며,

둘째, 북한은 南韓社會의 성격을 美帝의 「植民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민투」도 한국사회를 美帝의 「新植民地」로 규정하고 있

33) 脚註, 13) 참조.

34) 人民政權이란 공산당이 주도하는 잠정적 연합정권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이 왜 잠정적이거나 聯合政權 형식을 취하느냐 하면 政權奪取過程에서 민주, 민족, 자유주의세력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으며,

셋째, 북한은 타도대상을 남한의 美帝와 買辦資本家(反動官僚 포함) 階級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自民闘」도 타도대상을 한국내의 美帝와 買辦資本家(高級官僚 포함) 계급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매관자본가 계급이란 事實上 共產勢力을 총칭하는 의미임).

넷째, 북한은 對南共產化를 위한 革命의 主力軍을 남한의 「勞·農·學同盟」 세력으로, 그리고 補助軍을 各界各層의 광범한 「民衆階層」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自民闘」도 주력군을 한국의 「勞·農·學同盟」 세력으로, 그리고 보조군을 當面 타도대상을 제외한 各界各層(野黨까지 포함)의 광범한 民衆階層으로 책정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직접침략수단으로 「南朝鮮革命」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구실로서 反美·反帝·反戰·反核 鬭爭論理를 내세우고 있는데 「自民闘」도 이와 똑같은 主張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자민투」가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은 알고보면 북한의 對南共產化革命戰略路線인 1段階 「人民民主主義革命論」과 2段階 「社會主義革命論」 그 자체로서, 이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오늘의 韓國속에서 각색한 共產主義革命論인 것이다.

(5) 前衛勢力的 民衆統一論

그렇다면 오늘날 大學街의 운동권학생 前衛勢力을 비롯하여 노

동계, 종교계, 교육계, 문예계, 출판계, 기타분야의 민중혁명론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이른바 ‘民衆統一論’이란 어떤것인가? 그것은 우리 일반국민들의 순수한 염원인 民族統一과는 전혀 다른 매우 위험한 내용인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民衆統一이란 소위 ‘民衆’(노동자, 빈농, 도시빈민)이 主體가 되어 ‘民族解放’(自主)의 명분하에 駐韓美軍을 축출하고, ‘民衆解放’(民主)의 구실밑에 反共政權을 붕괴시켜 ‘民衆政權’이란 이름의 人民政權을 수립함으로써 북한의 공산정권과 聯合(北韓式 表現으로는 合作)하여 共產化統一을 달성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말하는 “自主·民主統一”論이며 국내 민중혁명론자들이 들고 나오는 두가지 解放 즉, 민족해방·민중해방에 의한 “民衆統一·解放統一”論의 正體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自民鬪」와 「민민鬪」간에는 다소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자민투」는 民族的 矛盾을 중시하는 나머지 先 민족해방(自主), 後 민중해방(民主)을 실현한 다음 북한에 吸收統一시키지는데³⁵⁾ 비해 「민민투」는 階級的 矛盾을 강조하는 나머지 先 민중해방(民

35) 自民鬪系 油印物, 「다시 한번 피티의 전술문제에 관하여」, 1987, p. 15, 「현정세와 우리의 긴급한 임무에 대한 평가」, 1987, p. 8 및 식민자에 프롱치 깨부수고 해방, 통일, 민주 만만세!!!」 p. 2

主), 後 민족해방(自主)을 실현한 다음 北韓과 地域自治에 의한 聯邦制를 거쳐 合作統一하자³⁶⁾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統一概念은 사실상 超階級的인 國民 또는 民族을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으로 分裂시키는 것이며 또한 和合에 의한 共存論理가 아니라 革命에 의한 다른 한편의 征服論理인 것이다.

라. 社會分野別 左傾化 現況

左傾勢力이 成長하는데 있어서 근원지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학가이며 그 구체적 무대는 이념서클과 독서회 등 학습집회였다. 그러나 오늘날 左傾勢力들은 대학가에 그치지 않고, 노동계·종교계·교육계·문예계·출판계·농촌과 빈민가, 각종사회단체속에 침투하고 있는 바, 그 현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大學街의 浸透現況

다른 나라의 경우도 대체로 비슷하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학가야말로 左傾勢力의 發祥地이며 그 要塞의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6·25 동란의 激動期를 거치면서도 대학가에서만은 左傾勢力이 은신하여 그 명맥을 유지해 왔으며 마르크스주의성향을

36) 前掲 「에스케이 혁명의 성격과 임무」, pp. 21~23.

지닌 서클들이 존재했는데, 이들이 오늘날 확대된 좌경세력의 胞子體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대학가에 일정하게 뿌리를 내린 左傾分子들은 처음에는 종속이론과 해방신학, 네오마르크스주의와 뉴레프트운동 및 西歐共產主義系の 서적으로 후배들을 조직적으로 意識化하는 과정을 거쳐서, 차츰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레닌主義 書籍으로 교육과정을 전환시켜 오늘날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을 양산시키는데 이른 것이다.

이렇게 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 1985년의 三民闘事件과 그리고 '86년의 民民闘, 自民闘를 거쳐 오늘의 「서민투련」, 「全大協」 등으로 이어지는 勢力들이다.

그리고 그 조직의 기관지로서 「民族民主宣言」과 「愛國學徒」 등을 비롯한 각종 간행물들을 내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地上組織의 배후에는 民民闘 中央委員會, 敎學聯(敎國學生聯盟)→愛學闘聯(전국반외세독재애국학생 투쟁연합) 中央委員會→活推會(총학생활성화추진회) (自民關係) 등의 지하통제조직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이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상·조직·전략·전술 및 이론, 그리고 金日成 主體思想 등을 담은 각종유인물을 전파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들 學生左傾組織들을 음성적으로 敎唆하는 교수들도 없

지 않는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례중 대표적인 경우로서 지난 '86年 9월에 드러난 서울大 間諜教授事件을 들 수 있다.

요컨대 대학가야 말로 左傾核心分子들을 생산, 공급하는 근원지가 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명목상으로는 이른바 『進歩的 青年學生』이 투쟁의 主力部隊로 기능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革命的 前衛』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 이들 左傾學生들이다.³⁷⁾

(2) 勞動界의 浸透現況

노동계에 대한 침투공작은 이미 대학을 졸업했거나 좌경학생운동과 관련하여 제적된 左傾分子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데, 이들이 노동계에 침투하여 노동자들을 意識 및 조직화하려 하는 이유는 노동계급을 革命的 으뜸가는 主力軍으로 동원하려는 목적때문이다.

이러한 목적 밑에 이들은 신분을 속이고 下層 일반노동자로 위장취업하는 방법으로 침투하고 있는데, 이같은 방법으로 침투한 左傾分子로서 적발된 수는 '83年에 12명, '84년에는 25명이었고,

37) 北韓共產集團도 『進歩的 青年學生』들을 최근에는 革命的 主力部隊로 추켜세우고 있다. “주체사상 강좌-제3장 민족해방운동의 전략과 전술”, 1987. 3, p.7 參考.

'85년에 이르러서는 307명, '86년에는 약 400명, 그리고 '87년에는 무려 933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위장취업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변으로부터의 신임을 얻은 다음, 勞組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事業場에서는 左傾勞組를 만들고, 勞組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노조를 『御用勞組』로 몰아세워 무력화시키는 方法을 쓰고 있으며, 상황이 허용하는 대로 『민주노조』라는 이름의 새로운 勞組를 結成, 주도권을 장악 활동하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勞組夜學』을 만들고 처음에는 어학이나 수학같은 학습을 거쳐 로마시대의 노예이야기인 『스파르타쿠스의 亂』, 高麗時代의 천민이야기인 『망이·망소이의 亂』 등을 가르쳐 인류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唯物史觀的 시각을 주입시켜, 현재의 사회를 계급투쟁의 시각으로 이끌면서 資本家階級과 투쟁하기 위한 조직, 투쟁형태 및 표어 등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勞動界에 左傾化氣運을 높여 나간다.

그리고 기업단위의 노동운동을 지역단위로 확대하고 그것을 다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인 봉기로 발전시키려 꾀하는 것이다.

서울노동운동연합(서勞聯), 인천지역노동자연맹(仁勞聯) 등이 바로 노동운동을 지역단위로 확대하려는 조직이며 그것을 전국적

으로 확대하려고 추진하던 것이 바로 전국노동자연맹 추진위원회 사건(1986년)이다.

이들의 기관지로서 “勞動者新聞”, “힘찬 鬭爭速報”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폭동과 혁명을 선동하는 부정기간행물도 전파시키고 있는데 노동계야 말로 左傾分子들이 침투공작하는 중요한 목표분야가 되고 있으며 명목상으로는 노동계급을 革命의 으뜸가는 主力軍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으나, 실은 “혁명의 前衛”를 자처하고 있는 좌경의식분자들이 이들을 최대의 이용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宗教界의 浸透現況

종교계에 있어서의 좌경화활동은 解放神學과 그것이 변형된 民衆神學, 그리고 民衆佛敎 등에 기초한 선교, 또는 포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종교세력들은 자체교회 및 사찰의 신도들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및 貧民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에 임함으로써 좌경세력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불우층에 접근 「민중해방」을 논하며 左傾革命勢力과 보조를 맞추게 되는 까닭은 보다 많은 신도들을 확보, 교세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³⁸⁾ 즉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38) 基督教信仰과 理念協議會報告書, 韓國基督教 教會協議會, 1987. 2. 13, p. 42 參照.

서는 차츰 비대해 지고 있는 左傾勢力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난하고 억압받는 민중을 위해서 고통을 함께 함으로써 “博愛와 慈悲의 실천”이라는 명분도 설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래 解放神學은 국민간의 소득격차가 극심하고 독재적 정치풍토가 만성화된 라틴아메리카에서 그 지역의 지배적 종교인 카톨릭의 신부들에 의해서 움트게 되어 그것이 차츰 改新教에까지 번지게 되었고 라틴아메리카에서 대두한 종속이론이 神學의 형식을 띠고 나타난 것은 종속이론의 思想과 실천방향감각이 그런 것처럼 마르크스주의와 非마르크스주의, 그리고 강경과 온건 등의 여러가지 경향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해방신학이 종속이론과 함께 우리 나라에 소개되고 '70年代에 이르러 차츰 수용되는 가운데 때마침 유행하던 民衆論과 결합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 「民衆神學」이 등장한 경위이다.

그러면 『民衆宗教運動』에 참여하는 神父, 牧師 및 僧侶들이 처음부터 좌경세력들과 직접 어울리게 된 것은 아니고 시대적 조류를 의식하여 左傾分子들에게 은신처나 학습장을 빌려주는 데서부터 시작하여³⁹⁾ 차츰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39) 多分히 宗教的 立場에서 비롯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당국의 査察이 성당, 교회 및 寺刹에 미치게 되면서 단순한 지원에서 비호로, 비호에서 동조로 진일보하는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거의 一體化되는 상태로까지 변모하게 된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종교세력들은 『민중운동』, 『노동자의 길잡이』, 『짓밟히는 농민운동』 및 『1,300萬 佛子여 깨어 일어나라』 등의 기관지 또는 부정기간행물을 내고 이러한 간행물들은 左傾勢力들이 革命을 선동하는 유인물을 내는데 유용한 보조자료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요컨대 宗教界의 일각이 좌경핵심분자들이 은신하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을 의식화하는 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중요한 보조역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이용되고 있으나 일단 당면예비혁명의 목표가 성취되고 사회주의혁명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념적 반동분자로서 保守宗教人과 함께 일괄 제거당하게 될 처지에 있는 것이 이들 「민중종교운동」 세력이라 할 것이다.⁴⁰⁾

(4) 教育界의 浸透現況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左傾化 확산활동은 『민중교육운동』, 또는

40) 마르크스·레닌主義의 觀點에서는 宗教를 전반적으로 『人民의 아편』으로서 간주하기 때문이다.

「민주교육투쟁」을 표방하는 중·고교 및 국민학교 교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민중교육운동」은 불우층 또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현실비판 및 부정의식을 심어주는 학교의 교육 및 중·고교생들에게 그 같은 의식을 심기 위한 교육활동이며 『민주교육투쟁』은 “教育의 民主化”를 내걸고 교사들로 하여금 反體制的 투쟁을 촉구함을 뜻한다.

이러한 교육운동을 주도하는 교사들은 많은 수가 좌경운동권 학생출신으로서 그 활동방법은 먼저 불우학생들에게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동료교사들에게 정의감이 투철한 良心的教師로 인정받도록 노력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높여 나간다. 그리하여 학교내에서 여러 모임을 만들고 주도하면서 同僚教師들과 弟子들에게 체제비판 또는 부정의식을 전파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들은 마르크스主義教育觀에 입각, 우리의 교육제도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支配體制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비판하고 가진 것이 없는 民衆을 위한 교육제도로 변혁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社會構造 그 자체부터 변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교육에 대한 反體制的觀點도 라틴아메리카의 民衆教育運動家인 『일리치』 및 『프레이리』 등의 教育思想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프레이리에 의하면 “右翼은 民衆의 의식화를 막고 지배를 계속

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의 새로운 文化行動方式을 고안해 낸다”고 하여 기존교육제도를 부정하고 있다.⁴¹⁾ 「일리치」의 주장도 기본적으로 「프레이리」와 마찬가지로 기존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日本에서 번창하고 있는 좌익교육사상서적을 비롯한 教育運動에 관한 서적들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左傾의으로 의식화된 민중교육운동 교사들을 스스로를 정신적 노동자로 내세우면서 육체적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社會主義社會를 실현하기 위한 인재육성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민중교육운동』은 현재 번지고 있는 『민중혁명운동』의 일환으로 종속이론, 해방신학 등과 맥락을 같이하는 교육운동이며 나아가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위장방편으로 삼고 있다는 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

「民主教育鬭爭」도 이같은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左傾教師 스스로가 勞組같은 조직체를 결성하여 투쟁해 나가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교육○○協議會를 기반으로 한 左傾教師들이 내고 있는 각종발행물을⁴²⁾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41) Freire, Cultural Action for Freedom, Penguin Books, LTD, p. 760.

42) 「民衆教育」, 「民主教育」 및 「常綠」 등이 그 代表的인 것이다.

(5) 文藝界의 浸透現況

문화·예술부문에 있어서의 左傾化 확산활동은 이른바 「민중문학」, 「민중미술」, 「민중연극」 그리고 심지어 「민중만화」 등을 표방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요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예부문에 있어서의 左傾化運動도 『민중혁명운동』의 부분운동임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민중문학운동」은 「민중혁명운동」의 촉진에 기여하려는 문학운동으로서 요컨대 『프롤레타리아文學運動』의 별칭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는 인물들도 左傾運動圈에 몸담고 있던 左傾分子들로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불만을 반체제적으로 이끌기 위해 변신한 급조된 노동자, 농민으로서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民衆文學」이란 民衆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고통상, 그같은 고통의 원인, 나아가 그같은 사회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투쟁하도록 자극하는 소설이나 시를 쓰고 발표하는 운동, 즉 社會主義리얼리즘에 의한 文學活動을 뜻하며 이같은 운동이 차츰 급조된 노동자, 농민 스스로의 작품활동형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중미술운동」도 역시 미술을 수단으로 하여 현실비판의식을 심어 주고 「民衆革命」을 촉진시키기 위한 운동으로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주로 20~30代의 젊은 美術家들이 同人體形

式으로 결집, 우리 사회의 어두운 생활상들을 소재로 삼고 경쟁심을 고취하는 특이한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중연극운동」도 역시 같은 思想에 바탕을 두고 대학시절에서부터 左傾化演劇運動에 참여했던 인물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집단은 군소극단을 만들어 주로 대학가나 노동자, 빈민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왕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 회관등을 빌어 특설무대를 꾸미고 공연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와같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左傾勢力들을 갖가지 단체를 조직하여 자체간행물까지 발행하고 있는데 『민중문화』, 『민중미술』, 『민중연극론』 등 시중에 나돌고 있는 출처불명의 서적들 외에 대표적 소설로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張吉山』 등을 들 수 있고 『그날이 오면』이란 제하에 『해방과 실천을 위한 노래모음집』이라는 副題가 달린 『민중노래책』⁴³⁾도 지하에서 보급되고 있다.

(6) 出版界의 浸透現況

출판계의 좌경화는 지금까지 언급된 제 분야와 총체적으로 관련된 것이며 '70年代 중반부터 시작, 지금은 그 數를 헤아릴 수

43) 이 노래책은 發行處가 明示되어 있지 않으며 地下에서 은밀히 左傾勢力사이에 流布되고 있다.

없을 정도로 번창하고 있다. 출판계의 좌경화현상은 左傾運動에 가담, 제적되었거나 무사히 졸업하기는 했으나 제대로의 취직처를 구하지 못한 左傾分子들이 생계유지 또는 혁명사업의 일환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므로써 조성되고 있다.

이들은 간단한 설비를 갖추고 이곳 저곳으로 기동성있게 옮겨 다니면서 외국에서 출간된 좌익서적의 번역, 편역, 복사간행, 그리고 간단한 좌경서적을 꾸며서 출판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은 그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로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82년부터 좌경관련서적 일부에 대한 開放政策을 취하게 되면서⁴⁴⁾ 이들은 이에 편승하여 본격적으로 左傾書籍들을 양산하기에 이르렀으며 대학가와 지식층을 상대로 左翼理論과 그 戰術을 대대적으로 전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같은 出版社는 대단히 많으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두』, 『○울림』, 『○산서당』, 『○름』 등을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외국에서 출판된 공산주의서적들을 약간의 체제만 바꾸어 번역출판하거나, 해방직후에⁴⁵⁾ 출판되었던 한글판 공산주의서적들을 그대로 복사출판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전자의 대표적 사례

44)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著, 신복용譯, 칼·마르크스, 평민사, 1982년 發行이 그 효시라 할 것이다.

45) 南勞黨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시기를 뜻한다.

는 세계철학사, (○두, 1986)가 있고⁴⁶⁾ 후자의 경우로는 『社會科學大辭典』(○올림, 1987)을 들 수 있다.⁴⁷⁾

이들은 주로 대학가 주변 또는 대학생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자리를 잡고 좌경서적을 비롯하여 반체제적 간행물, 카세트테이프, 슬라이드, 필름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며 좌경운동권체들의 기관지를 보급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출판사와 서점들은 좌경서적류가 잘 팔린다는 사실에 눈을 돌려 수익위주의 상업주의가 작용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같은 左傾文物을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복사기에 의한 핵분열과 같은 보급기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 저리한 출판사, 이름조차 기묘한 출판사들이 출간한 左傾書籍들은 이제는 시중의 거의 모든 서점에서 뿔뿔하게 팔고 있어서 좌경성이 없는 일반서적들을 수적으로도 단연압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요컨대 出版 및 書店界에 있어서도 左傾活動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그러한 경향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6) 소련의 最新哲學敎材 “Osnovy Marksistskoy Filosofy”(1958)의 日譯書 “哲學敎程”(合同出版社, 1959)을 다시 옮긴 것이다.

47) 白南雲外 36인이 집필한 左翼書籍이다.

(7) 其他分野의 浸透相

이상에서 언급한 이외에도 사회 각분야에 左傾勢力이 침투하고 있으며 그 같은 현상은 특히 同盟의 폭을 넓게 설정하고 있는 左傾勢力들이 침투하는 분야는 현실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階級, 階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명분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政權을 잡기 위한 豫備革命段階에 있어서는 數적으로 우월하거나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능력면에서 우월한 집단속에 침투하는데 역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크게 의존할 바는 못되더라도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농민, 도시빈민에 대한 접근도 역시 중시하게 된다. 농민에 대한 좌경화는 주로 농촌에서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종교단체속에 침투한 左傾分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기방학기간을 이용한 좌경학생 주도의 농촌활동도 그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데 대학생들의 農活기간이 대체로 10일 내외이고, 農民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며 분산적이어서 사실상 修鍊會(MT)員들의 自體意識化에 치중하는 형편이다.

한편 都市貧民에 대한 左傾化活動도 전개되고 있는데 역시 都市貧民을 상대로 하는 선교단체 속에 침투한 左傾分子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政黨이나 社會團體 등에 침투하여 그들의 노선을 左傾化하려는 左傾分子들의 활동도 간과할 수 없다.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이미 左傾性을 나타내고 있는 사회단체가 전국에 총 90개에 이르고 있으며 분야별로 세분하면 대학가와 교육계, 노동계, 종교계, 문예계, 사회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의 사회단체들을 가장 많이 수용하여 民民鬪派, 自民鬪派 등에 가까운 정도의 左傾性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民統聯속의 左派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단체의 기관지(民衆의 소리나 民主·統一) 등에는 반체제적이며 反美的 주장이 가득차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단체는 1989년 1월 21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약칭「全民聯」)이란 보다 포괄적인 일종의 통일전선 조직을 결성하기 위해 발전적 해체를 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與黨이나 三府機關, 특히 權力機關속에도 혈연, 지연 및 학연을 타고 좌경세력이 합법적으로 침투, 반공에 가장 투철한 체하면서 국민들에게 反美·반정부적, 더 정확히는 반체제적 氣運을 지니게끔 유도하는 공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左傾大學生들이 소요문제와 관련하여 조기입영 처리되었던 현상은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른바「敵軍互惠事業」의 내용을 생각할 때 신중한 재검토가 요망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7.北韓의 ‘南朝鮮革命論’

북한이 말하는 소위 ‘南朝鮮革命’이란 후진국에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連續 2段階革命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그 1단계혁명을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 하고 그 2단계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이라 부른다. 이것은 레닌이 개발한 것을 스탈린이 후진국 공산화를 위하여 援用한 혁명 전략개념이다.

1 단계혁명에서 그들이 노리는 전략목표는 명분상으로는 外勢를 驅逐하고 파쇼정권(또는 봉건제도)을 청산하는 것이라 외치고 있지만 실질상으로는 모든 非共產正權을 타도하고 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하는데 있으며(그들은 이 정권을 통상 ‘人民政權’이라 부른다), 2 단계혁명에서 그들이 노리는 전략목표는 인민의 재산권(정확히는 생산수단)을 몰수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들은 1 단계혁명을 ‘豫備革命’ 또는 ‘불완전혁명’이라 말하고 2 단계혁명을 ‘本格革命’ 또는 ‘완전혁명’이라 말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그들이 현재 세우고 있는 당면 대남혁명 전략은 1 단계혁명인 人民政權을 수립하기 위한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인 것이다.

김일성은 1955년 12월 28일 노동당 선전·선동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수행방법 두가지를 제시

한 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앞서도 언급한바 있는 “非평화적 방법”과 “평화적 방법”이다.

여기에서 김일성이 말한바 비평화적 방법이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6·25 남침전쟁때처럼 북한의 소위 인민군 무장력을 노골적으로 동원해서 正規戰의 수단으로 남한을 정복하는 직접침략방법을 뜻하는 것이고, 평화적 방법이란 그들이 공작원(간첩)을 남파하여 북한노동당의 종속당으로서의 지하혁명당(그들은 남한내에 지하혁명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이 존재하는 것처럼 선전해 왔음)을 構築하고 그 지하혁명당이 남한의 각계각층 非공산세력을 포섭하여 무장봉기라고 하는 폭력적 수단으로 人民政權을 수립한 다음 중국적으로는 북한공산체제에 흡수시키는 수법을 뜻하는 것인데, 이 평화적 방법을 택할때의 특징이 바로 각계각층의 非共産勢力을 포섭하여 그들의 힘을 이용한다는데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그들이 남한의 각계각층의 非共産勢力을 포섭하고 이용하는 수법으로 구사하고 있는 전술이 바로 “統一戰線戰術”⁴⁸⁾이란 점이다. 「통일전선전술」이란 쉽게 말

48) 統一戰線戰術이란 레닌이 「共産主義左傾小兒病」(1920)이란 책에서 교사한 것인데 敵의 적은 잠정적인 동지라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 시말은 共産黨이 大衆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공산당이 主敵을 포위, 고립시키고 革命力量을 보호하는데 쓰이는 능동적인 전술로까지 발전되었다.

하면 공산당이 그들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당면 타도대상만을 제외한 각계각층의 非共產勢力의 힘을 이용하기 위한 잠정적인 政治的 聯合手法(同盟術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남한의 反共·自由民主體制를 타도하기 위해 각계각층을 포섭하는 통일전선 形成上 가장 비중높은 대상으로 손꼽고 있는 것이 남한의 青年學生, 즉 大學生이란 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 대학생을 두고 “革命的 起爆劑”, “혁명의 씨앗을 뿌리는 媒介者”, “노동자·농민에게 혁명을 전파하는 교두보”, “반미·반파쇼 민주구국투쟁의 旗手”⁴⁹⁾, “투쟁의 앞장에서 혁명의 돌파구를 개척하는 主力部隊”⁵⁰⁾라는 등 우리 대학가의 反政府·反體制的 騷擾事態를 고무, 찬양, 선동하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4·19의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회있을 때마다 줄곧 전개해온 작태이지만 근년에 와서는 학원 소요가 極左化, 暴力化되고 노동운동과 결부되는 기미를 보이자 그 선동양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리하여 '85년에는 그들이

49) 「김일성저작선집」 4권, pp. 395~396.

50)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 “한국민족자주선언”(통혁당 목소리방송, 1985. 8. 8.)

흑색 선전하고 있는 남한내의 「통일혁명당」이라고 하는 유명단체의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그 機關放送인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⁵¹⁾의 명칭을 「구국의 소리방송」⁵²⁾으로 바꾸는 등 재정비 하더니 '86년에 와서는 南北對話마저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핑계삼아 중단시키고 남한의 4·19와 5·17週期에 초점을 맞추어 신문, 방송등의 報道媒體와 「社勞青」(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을 위시한 노동당의 外廓團體, 각급학교의 總·學長 및 학생집회까지 동원하여 남한의 대학소요를 무장봉기단계로 끌어 올리려는 의도하에 대남선전선동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평양방송이 인용, 보도한 '86년 5월 13일자 「노동신문」에 게재한 「사로청」위원장 이영수의 論說인바, 이영수는 “북과 남의 청년학생들이 통일운동의 기수가 되자”는 제하의 논설에서 남한의 대학생들이 南北學生會談을 제

51) 北韓은 1966. 10. 5. 第2次勞動黨代表者會의 결정에 따라 1967. 3. 5부터 평남 순안에서 「남조선해방민주민족연맹방송」을 개시하면서 이것이 마치 남한내에 있는 것처럼 그 出處를 위장하였다. 1970. 6. 15을 기하여 이 放送의 名稱을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으로 개칭하여 흑색방송을 자행하고 있으나 그 송신소의 위치가 동경 125도 42분17초, 북위 38도 1분 7초에 해당하는 해주남산지점이다.

52) 북한은 1985년 7월 27일 「통일혁명당」을 「韓國民族民主戰線」으로 변경하면서 「통혁명당목소리방송」도 「구국의 소리방송」으로 개칭하였다(평양방송, 1985. 8. 8. 및 노동신문, 1985. 8. 8.)

기할 것을 이미 충동질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南北統一의 障礙要素가 바로 “주한미군”이라는 관점으로 남한대학생들을 유도하여 학생들의 反美鬭爭運動을 高潮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 대학생들로 하여금 주한미군철수를 주제로 한 남북학생회담을 제기케함으로써 학생들의 反政府鬭爭을 가열화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저의는 '88년에 들어 「全大協」⁵³⁾ 名義로 北韓學生에게 提議한 6·10 및 8·15 板門店 南北學生會談에 대한 저들의 反應에 서 잘 立證되고 있고, '89년 임수경의 「평양집회」 참석 전후에 일어났던 제반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53) 「全大協」이란 「자민투」 主導의 全國聯合組織으로 全國 大學生代表者協議會의 略字이며 '87. 8. 19 大田忠南大學校에서 結成되었다.

「서대協」이란 「자민투」 주도의 서울 地域·大學生聯合組織으로서 서울 地域大學生代表者協議會의 略字이며 1987. 5. 8 서울大學校에서 結成되었다.

「서總聯」이란 「서대協」의 變身으로서 서울地域·總學生聯合會의 略字이며 1988. 5. 13 結成되었다(詳細한 것은 表 2參照).

8. 前衛勢力的主張과 그 問題點

이상에서 분석한 운동권학생 전위세력의 주장과 투쟁노선을 간추려 보면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첫째의 문제점은 民衆民主主義革命論이다. 그들이 노동자, 빈농, 도시빈민으로 구성된 基層階級의 연합체인 '民衆'이 주력군이 되어 폭력혁명으로써 민중을 해방하고 민중민주주의정권(중국적으로는 社會主義·共產主義 指向)을 수립하는 것을 당면 鬭爭目標(戰略目標)로 삼고 있는데, 이를 위한 「민중민주주의혁명」이란 것은 북한이 당면 대남혁명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혁명과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이들이 '人民' 대신 '民衆'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국민의 反共思想과 남한에서의 共產黨 不法化라는 특수환경 때문에 전술적으로 위장했을 뿐이며 인민이건 민중이건 간에 그것이 유물사관적 입장에서 언급될 때 被支配層을 총칭하는 계급적 용어로서 비계급적인 평등개념으로서의 '국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반국가적·반민족적 用語概念이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민중혁명론이란 바로 共產化革命論과 同義語인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보수적인 기존 정치세력은 그것이 野黨이든 在野人士이든 간에 무조건 기회주의집단

또는 改良主義者로 몰아 궁극적인 타도대상으로 삼고 있다.⁵⁴⁾

그러나 운동권학생 전위세력은 필요에 따라 그들의 당면목표인 民衆革命을 통한 民衆民主主義政權의 樹立을 위해서는 전술적으로 野團과 일시적인 연대를 형성하여 이를 폭력혁명의 기폭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共產黨式 統一戰線戰術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그리고 운동권학생 전위세력은 그들의 무장력을 조직화하여 民衆의 政治鬭爭, 곧 혁명적 봉기를 일으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역사적 경험은 피로써 정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⁵⁵⁾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民衆主導의 民主化라는 것은 통념적으로 이해되는 토론과 타협으로 상징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流血革命으로

54) 「자민투」는 그들의 기관지인 「해방선언」 제1호에서 “신민당과 「민추협」등 보수자유주의자들의 기회주의적 민중기만술을 철저히 폭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민투」는 그들의 기관지 「민족민주선언」 제2호에서 “우리는 더 이상 민중들의 혁명외지가 야당집권을 위한 직선제 개헌서명운동과 압력적인 가두집회로 변질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 즉각적으로 민중의 정치투쟁, 나아가서는 봉기를 조직화할 헌법제정민중의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55) 이같은 발언은 마르크스가 라인신문에서 언급하였고 김일성도 그같은 발언으로 暴力革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前掲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 p. 123. (김일성저작선집, 5권, p. 243).

대표되는 인민민주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두번째의 문제점은 한국의 사회구성체 평가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主要矛盾論이다. 그들은 한국의 사회구성체를 나름대로 “예속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 “國際獨占資本主義下的 隸屬獨占資本主義 社會”, “周邊部資本主義 社會”, “新植民地 社會”등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주요모순을 “파시즘·매관자본과 민중간의 모순”, “隸屬獨占資本(土臺) 및 파시즘(上部)과 민중간의 모순”, “군부독재와 민중간의 모순” “제국주의·파시즘과 민중간의 모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920년대 공산당의 선전판플렛 정도에서 볼 수 있었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파에 의한 도식적이고 상투적인 주장논리로서 혁명의 구실을 찾기위해 고의로 꾸며낸 악의에 찬 감정적 평가이지 결코 이성적 평가라고는 할 수 없다.

共產主義者(마르크스·레닌주의자와 同義語)들은 자본주의국가 상호간의 국가관계를 두고 무조건 支配·隸屬關係로 매도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혁명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날조한 모함이지 오늘날의 資本主義國家 상호관계의 眞面目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國際經濟關係는 상호의존관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主從關係를 기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대등한 협력관계를 기조로 하는 경제협력적 국

제관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자본주의국가 상호 관계에서는 垂直分業은 존재할 수 없고 水平分業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非共產國家를 두고 무조건 독점자본주의 사회,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 운운하면서 매도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지구상에는 자본주의 국가치고 경쟁에 의해 경쟁이 부정되는식의 自由放任的인 獨占資本主義國家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가 그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公權力을 개재시키는 발전 지향적 자본주의국가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두고 국가의 공권력과 일부 자본가와와의 유착관계라는 뜻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일부 後發開途國에서나 볼 수 있는 비정상적 예외 또는 과도적 현상일 뿐이지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실상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발전된 現代資本主義國家群에 속하면서도 大衆資本主義에 바탕을 둔 고도의 산업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공산주의에 물들은 전위세력의 주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다만, 우리의 경우 문제가 된다면 경제발전도상에서 간혹 야기되는 不條理 現象과 先進資本主義國家를 상대로 한 경제협력과 정에서의 불균형 문제인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자본주의적 합리성이 최상책이지 결코 공산주의적 폭력성이 方策일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말해 대내적 부조리나 대외적 불균형현상이 있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자본주의적인 順機能으로만 극복 가능한 것이지 공산주의적인 폭력으로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사회를 두고 비방하는 대내적인 모순이나 대외적인 主從關係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보다 공산주의사회에서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당 집권국가 내부에서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노멘꾸라뚜라”라고 하는 붉은 귀족과 일반주민간의 극심한 차별대우에서 파생되는 모순갈등이 있고, 사회주의 진영내에서는 「코메콘」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宗主國 소련과 기타 국가간의 경제적 종속관계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사회의 과도적 현상이라 볼 수 있는 貧富 隔差를 두고 매관자본가와 민중간의 계급적 모순으로 규정짓고 있는데, 이는 계급간의 모순이 아니고 체제내적인 정책상의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두고 볼 때 그들에 의한 한국의 社會構成體 評價論은 폭력혁명의 명분을 찾기 위한 마르크스·레닌주의식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그 세번째의 문제점은 反美·反帝·反戰·反核鬭爭論이다.

운동권학생 전위세력은 반미·반체제투쟁을 강조하며 그 핵심 고리전술로서 반전·반핵투쟁의 전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 주

장의 논거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⁵⁶⁾

①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고, ②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 제국주의적인 경제수탈을 자행하고 있고, ③ 미국이 한국을 社會主義圈 공격을 위한 군사핵기지, 對蘇전진기지로 만들었고, ④ 미국이 한국군을 제국주의 군대의 용병으로서 양키들의 총알받이化하고 있고, ⑤ 미국이 현정권과 보수양당세력의 보호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한미군은 우리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敵이므로 철수해야 하며 韓·美연합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또는 “팀스피리트핵전쟁 연습은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이상과 같은 反美·反帝·反戰·反核鬭爭論理는 마치 북한의 대남공산화혁명전략 구호와 국제공산주의 세계공산화전략 구호의 복사판이라할 만큼 흡사한 것이다.

예컨대 반전·반핵투쟁의 경우, 국제공산주의자들은 서방세계의 핵무기와 전쟁대비태세를 두고 세계공산화혁명의 당면한 최대의 장애로 간주하여 서방세계의 평화주의자, 환경보호운동가들을

56) 이와 관련한 언급들은 各種 左傾油印物에 수시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민족민주선언」 및 「해방선언」 등 機關紙的 성격의 신문류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동, 반전·반핵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북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핵무기 철거를 주장함과 아울러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선전구호로 내걸고 반전·반핵투쟁을 反美·反帝의 핵심적인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때 운동권 전위세력이 반전·반핵투쟁을 “反美·反帝의 핵심고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북한측 입장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반미·반제·반전·반핵을 주장하는 이유는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있는 한·미동맹관계를 단절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우리의 戰爭抑止力을 無力化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전위학생들이 공공연하게 우리 국군을 “양키의 용병”이라 매도하고 軍의 민주화란 명분으로 군 조직체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士兵評議會”(평의회란 “소비에트”의 뜻임)의 설치를 주장하여⁵⁷⁾ 국군의 분열을 기도하려는 것만 보더라도 그들의 反戰·反核鬭爭이 지닌 저의가 무엇인가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상과 같은 운동권학생 전위세력의 주의주장이나 논리가 그들의 對南革命路線과 같다는 것은 북한측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57) 서울대 벽보, “86민족민주투사들의 병집훈련을 맞으며”에서

다. 그 예로서 그들은 '86년 3월 17일,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82. 3. 17)을 기념한다는 구실로 동원한 평양시내 각급학교 학생 쫓기대회에서 운동권학생 전위세력의 민중혁명 주장을 두고 “민족의 의사를 집대성한 애국적이며 정당한 주장으로서 북의 노선과 같다고 해서 탄압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들을 적극 비호한 바 있고 또한 이들에 의한 學園騷擾를 계속 선동하고 있다.⁵⁸⁾

9. 結 語

지금까지 우리는 일부 운동권학생 전위세력이 전개하고 있는 民衆革命論의 정체를 살펴보았다. 그들이 외치는 민중민주주의는 「민중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상은 북한의 당면 대남혁명노선인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장한 공산주의적업혁명가의 정권획득 과정임도 알았고 또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공산당정권은 그들이 혁명과정에서 표방한 이념과는 달리 일반대중과는 거리가 먼 一黨獨裁體制를 構築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는 일반학생들은 운동권학생 전

58) 「평양방송」, 1986. 3. 17.

위세력들의 장단에 맞추어 때도 장소도 가리지 않고 파쇼독재정권의 타도를 외치고 있다. 오늘의 우리대학생들이 진실로 독재정치가 싫다면 공산주의식,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미명하에 一黨獨裁, 1人獨裁를 자행하는 공산당식 가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인 자유민주주의의 깃발 밑에서 투쟁해야 옳을 것이다.

우리 절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民主主義는 두개 이상의 政黨을 가지는 정치제도, 언론·출판·결사·종교의 자유와 자유선거·자주적 노동조합과 법치주의가 보장되어 있는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인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독재없는 자유와 사회개혁을 위한 필수요건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부르주아적이라고 하여 근본적으로 배격하는 것은 그것이 「人民民主主義」이건 「社會民主主義」이건 「民族民主主義」이건 「民衆民主主義」이건 모두가 허위요 기만인 것이다. 민주주의 이름 밑에 1인의 전제주의 통치를 43년간이나 강행해 온 金日成體制, 공산당이 내세운 單一立候補者에게 그것도 100% 찬성 투표를 던지도록 만들어 놓은 독재기구를 최선의 민주주의라고 자랑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모든 토론은 공산당 최고권력자의 정책에 대한 찬성토론이요, 모든 안건은 예외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이 또한 북한의 민

주주의이다. 이 전제주의적 정치제도를 반대하다가는 비공산주의자는 물론, 양심적인 공산주의자까지도 투옥, 행방불명, 또는 강제노동수용소의 신세가 되는 것이 모든 북한 주민들의 운명인 것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붉은 사상에 도취되어 있는 運動圈學生 前衛勢力들은 바로 그런 식의 민주주의를 쟁취하자고 순수한 대다수 학우들의 꺾기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전위세력들은 북한이 내세운 책략적 구호와 극렬한 표현을 복창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그에 따른 기성 가치체계를 파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드디어는 “反共이데올로기”를 분쇄하자고 떠들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우리는 반공이데올로기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인가를 알아들 필요가 있다.

레닌 이래로 공산당은 그들의 一黨獨裁를 수락하지 않는 무정부주의자, 민족주의자, 자유주의자, 민주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노동조합운동가, 종교인들을 불구대천의 敵으로 간주해 왔다. 그리고 일단 權만 잡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공산당에 굴복하지 않는 한 가차없이 탄압, 말살해온 오랜 전통을 쌓아 올렸다. 이러한 무자비한 독재와 투쟁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것이 바로 反共이데올로기인 것이다. 따라서 反共이데올로기는 원천적으로는 공산당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며 한반도에서는 북의 노동당이 만

들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식이 소멸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반공이데올로기 또한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共產主義에 물들은 운동권학생 전위세력들은 우리나라를 “美帝의 植民地”, 反共勢力을 “賣國事大主義者들”이라고 매도하는가 하면 6·25동란을 “民族解放戰爭”이었다고 까지 터무니없이 떠들고 있는 실정이다. 유고공산당도 일본공산당도 중국공산당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北侵說’⁵⁹⁾과 ‘민족해방전쟁론’에 대해 이들은 북한의 선전을 따라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김일성과 스탈린의 기습남침으로 일어난 6·25야말로 한반도의 긴장과 남북간의 불신을 조성해온 근본원인인 것이다.

사리가 이렇게 밝혀진 이상, 이제 운동권학생 들이 진정한 민족지성인으로 자처한다면 하루빨리 공산주의 혁명분자들과 결연히 갈라서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도 인간이 만든 것인 이상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이념은 지금까지의 인류의 良

59) 호루시초프秘錄(回顧錄)과 '83년 6월 25일자 유고의 「베스니크」 신문 및 '86년도 중국판 백과사전 「부리타니카·엔사이클로피디아」는 北韓의 6·25남침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일본공산당 기관지 「赤旗」 '85년 9월 9일자에서는 6·25북침설을 부정적으로 논급하고 있다.

識이 창출해낸 가장 이상적인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시정해 나가는 것이 최상책이지 그 代案이 결코 프롤레타리아독재 명분하의 共産黨一黨獨裁體制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오늘의 東歐圈의 大變革이 응변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끝으로 첨언할 것은 운동권학생 전위세력들의 言動이 북한의 마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서 문제시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바, 이는 지극히 위험한 微視的인 短見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발상지는 북한이 아니고 소련인 것이며 또한 공산주의의 창시자는 김일성이 아니고 마르크스와 레닌인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의 현실에 맞도록 移植했다는 것이 북한공산당이고 그것을 한국의 현실에 맞도록 이식하려는 자가 운동권학생 전위세력이고 보면 공산주의신봉자란 측면에서는 남북한의 공산주의자간에 하등의 다른 점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北韓과 직접 손이 닿고 안닿고 간에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政府는 이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조치를 강구해야만 하고 아울러 우리국민 모두는 이들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가지고 범국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表 1〉 兩大分派의 路線比較

區 分		N. D. R 派	N. L. P. D. R 派
社 會 評 價		예속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CA)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C.P.C)	신식민지 半봉건사회(半자본주의사 회)
主 要 矛 盾		파쇼와 민중간의 모순(GA) 제국주의·파쇼와 민중간의 모순(CPC)	美帝와 남한민중간의 矛盾
戰 略 計 劃	목 표	先파쇼 打倒로써 민주주의 민중공화 국 수립후, 統一促進	先美帝 축출로써 민중민주주의정권 수립후, 통일달성
	주 력 군	프롤레타리아트와 前衛組織	노동학생들과 전위조직
	동 맹 대상	貧農, 도시빈민, 青年學生 등	지식인(종교인 포함) 중소상공업자, 하층 공무원과 군인 일부 민족자본가등
	제 휴 대상	금진자유주의부르주아지	자유주의부르주아지 全般
	고립화대상	보수자유주의부르주아지	일부 동요분자
特 徵		처음부터 계급모순 타파에 주력	처음에는 민족모순 타파에 주력
戰 術 的 事 例			
改 憲 局 面		개헌부정, 민중헌법을 요구	新民黨의 직선제 개헌에 편승
大 統 領 選 舉		임시혁명정부의 실현을 지향	민중연합정부의 실현을 지향
國 會 議 員		「民衆의 黨」후보를 지원(C.A)	
總 選		「民衆의 黨」無用을 주장(C.P.C)	民主黨候補 落選鬭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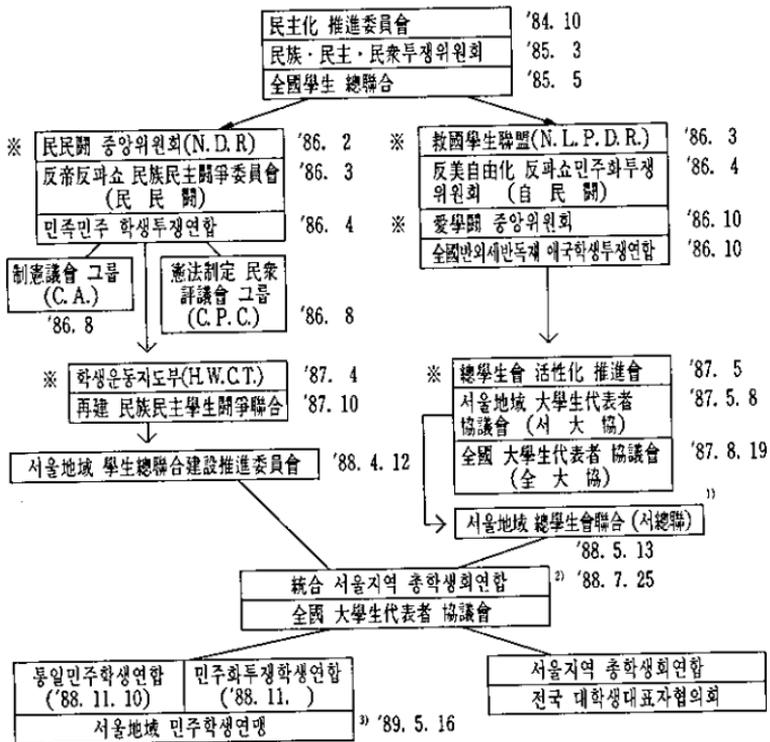
※ 第2段階 社會主義革命戰略(兩派共同)

目 標		私有制 沒收, 공산주의 지향 ¹⁾
力 量 配 置	主 力 軍	프롤레타리아트와 黨
	同 盟 對 象	빈농, 인접국의 프롤레타리아트
	孤 立 化 對 象	小부르주아지
有 利 한 契 機		부르주아정당 및 국가간의 모순 ²⁾

註 1) 공공연히 프롤레타리아獨裁를 確立, 行使함.

2) “間接豫備軍”이라고도 表現함.

〈表 2〉 兩大分派의 改編過程(1989. 5. 31 現在)



※ 표시組織은 該當地下統制組織임.

註 1) 서울 以外의 타지방은 아직 「○大協」으로 있는 상태임.

2) N.D.R派는 통합 「서總聯」속의 少數派로 된 상태임.

3) N.D.R派는 '89. 5. 3 부산 東義大事件을 계기로 전대협이 非暴力 투쟁을 宣言하자 이에 반발, 「서民學聯」을 結成하여 폭력투쟁을 宣稱하고 있음.

4) '89年 5月 16日 이후부터는 NDR派가 NLPDR派를 두고 反帝鬭爭박에 모르는 非科學的, 空想主義者라 是非하면서 自己들을 PDR派라고 자칭하면서, 從來의 NLPDR派를 NLR波로 몰아붙이고 있으며 全大協도 非暴力鬭爭을 宣言한지 4個月 만에 다시 暴力鬭爭으로 돌아섰음.

民衆民主主義革命 그 實相과 問題點

1990年 1月 18日 印刷

1990年 1月 25日 發行

發行處：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中區 獎忠洞2街 山5 - 19

電話：234 - 4102

(국통연 89-12-136)

